

뉴스홈 | 최신기사

## MLB 사무국, 해외 출신 선수 뽑는 '국제 드래프트' 도입 추진

송고시간 | 2022-03-06 11:09

임순현 기자  
기자 페이지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드래프트를 통해 해외 출신 선수들을 선발하는 '국제 드래프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MLB닷컴은 6일(한국시간) "MLB 사무국이 노사 협상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난무하는 현 시스템을 대체할 수단으로 국제 드래프트의 도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지역의 선수들은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MLB 구단에 입단하지만, 그 외 지역의 선수들은 각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



이에 대해 MLB닷컴은 각 구단이 12~14세의 어린 선수들과 구두로 입단을 합의한 뒤 16세에 정식으로 계약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선 일부 선수들이 강한 심적 부담감에 금지 약물을 손대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MLB 사무국은 국제 드래프트 도입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선수나 구단 모두 특정 선수가 언제 어떤 구단에 의해 선발될지 모르는 현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정당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에서 "국제 드래프트는 구단들에 더 공평하게 인재를 배분하고 악용 사례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MLB 사무국이 제안한 국제 드래프트는 성적 역순으로 진행되는 신인 드래프트와 달리 각 구단의 성적과 상관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 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 '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MLB 30개 구단이 5개로 분류된 그룹에 6개 구단씩 무작위로 배정된 뒤 각 그룹이 5년을 주기로 순위를 번갈아가며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총 20라운드를 진행해 600명의 선수를 선발하고, 각 구단은 다른 구단에 선수 선발권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명 순번에 따라 계약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MLB닷컴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 1천명 이상의 해외 선수에게 지출된 금액보다 국제 드래프트 선발된 600명에게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un@yna.co.kr

#### 🔗 관련기사

전 다저스 투수 켈리의 호소문 "아구 포기하지 말아달라"

MLB 노사, 7일 협상 재개...PS 진출팀 안건으로 재협의

MLB 시범경기 또 연기...사무국 "3월 18일까지는 불가능"

마이내리그 투수 3명,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출장 금지 징계

MLB-선수노조, 정규리그 취소 피해 지원 기금 조성

MLB 노사, 협상 재개...90분 동안 핵심 관계자 2대 2 협상

'MLB 스타' 트라우트 "커미셔너, 공정한 협상 대신 리그 취소"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6 11:09 송고

#MLB

#국제 드래프트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렁열렁...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안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We Do Technology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38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1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55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9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연말뉴스

TONG  
TONG  
Culture

TONG  
TONG  
TECH

TONG  
TONG  
Living

ESPAÑOL  
NOW

한반도

SNS

f

twitter

instagram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